

금교령(禁敎令)과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 발발

1587년, 사실상 일본 전국을 지배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리스도교의 신부를 추방하고 그리스도교의 포교를 제한하는 명령(금교령, 禁敎令)을 공포함과 동시에, 오무라 스미타다가 1580년에 예수회에 헌납한 나가사키를 몰수하여 직할령으로 삼았다.

1597년, 나가사키의 니시자카에서 외국인 수도사 6명을 포함한 신자 26명을 처형했다. 오늘날에는 당시 처형당한 신자들을 일본 26성인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유럽과의 무역을 계속하고자 했고, 이로 인해 금교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에도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은 지속되었다.

1598년에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 그리스도교의 신자 수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에도 막부를 개창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당초에는 무역을 계속하고자 그리스도교를 용인했다. 일본 전체로 봤을 때 신자의 수는 가장 많았던 시기에는 3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1614년에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의 봉건 체제를 확립하면서 그리스도교의 금교령이 공포되었다. 선교사는 마카오와 마닐라로 추방당하고 교회는 파괴되었으며, 이에 더해 혹독한 탄압에 의해 수많은 신자가 신앙을 포기했다. 하지만 선교사가 일본을 떠난 후에도 은밀히 신앙을 이어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37년, 다이묘(영주)의 폭정과 기근이 겹치면서 시마바라와 아마쿠사의 주민들은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을 일으켰다. 봉기 최후의 전쟁터였던 하라 성에서는 2만 명 이상의 봉기군이 12만 병사로 구성된 막부군의 공격에 맞서야 했다. 최종적으로 막부군은 봉기군을 전멸시켰고 하라 성을 철저히 파괴했다. 하라 성터에서는 봉기군으로서 대항했던 기리시탄들의 메달과 십자가 등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이 봉기를 처음부터 기리시탄이 주도했다고 판단한 막부는 이후 탄압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 그리스도교는 더욱 험난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삽화: 쇼지 요시타카)